

短い一年間の留学生活で得たもの

2005年4月～2006年3月受入交換留学生

韓国カトリック大学言語文化学部 2年

金 煥善 (キム・ヨンソン)

短いと言えば短い一年間の留学生活。一年間の留学生活は私にとって、本当に忘れられない大切な時間になった。一年間の留学を通じて、日本語の実力をさらに養え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く、何よりも自分を成長させることができた時間だったと思う。自分が生まれたところを離れて、他の文化に接しながら生活することは大変なことだ。また、いつも一緒だった両親や親しい友達と離れて、外国で一人暮らしをするのは考えられないくらい大変なことだと思う。しかし、大変なことより、自然な日本語と日本文化を直接に経験したい気持ちの方が大きかったので、勇気を出して交換留学に応募した。そして、2004年8月、運良く合格して信州大学で2年生の1年間を過ごせるようになった。それでは、一年間楽しかった経験についていくつか書くことにする。

2005年4月1日、初めて経験する日本での留学生活に、期待とわくわくする思いで名古屋行き飛行機に乗り込んだ。名古屋空港から1年間生活する松本までは、全部で6時間くらいかかった。その日を振り返って見ると、本当に疲れたという言葉しか出て来ない。名古屋から松本までのバスの時間が、はっきり分からなかった私たちは、バスで松本に向かうことをあきらめ、通り過ぎる人たちに聞きながら、いっぱい荷物を持って、途中地下鉄線も使い、電車でやっと松本に辿り着いた。このように、日本での留学生活はどたばたと始まった。日本はわが国と地理的には異なっているが、文化的には似ているため、初めは日本に来たという実感がわかなかった。道を歩きながら「ひらがな」や「カタカナ」で書いてある看板を見つけて、「ああ、ここが日本か」と気がついたし、隣の町に引っ越してきたようで最初は慣れなかった。

やはり一番大変だったもの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だった。「私が話す日本語を理解してもらえるか、また私の発音がおかしく私の言うことがわからなかったらどうしよう？」など、半年間緊張しながら日本語を話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前期には日本人と一緒に授業を受けることが無理だと思い、留学生センターの授業を中心に受けた。あらゆる仕事は努力なしには為し得ない。漢字と語彙が足

りない私は日本語能力試験の勉強をしながら、語彙能力を伸ばす努力をしたり、チューターの新井恵美さんと1週間に1～2回会って、発音練習とともにおしゃべりをしながら、日本語を話す練習をしたりした。後期に入ってからには留学生センターの授業と人文学部の授業、一年生の共通教育授業をとった。花崎先生の「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概論」と、聴講生として指導教官である沖先生の「日本語教育学概論」を受けた。授業の内容を全て理解するのは難しかったが、言語を学ぶことを中心とした授業以外に、日本語で他の事を習うことが楽しくて、人文学部の授業の水曜2限と金曜2限を楽しみに待つようになった。特に花崎先生が記憶に残っている。ユーモアを交えながら、元気な表情と大きい声で教えている姿は本当に素敵だった。

二つめに日本文化を直接経験できたことだ。留学生センターの授業の中でも、伝統文化の授業は日本文化を知るためには一番良い授業だったと思う。茶道をはじめ着物体験、書道、華道、歌舞伎など、たくさん見て体験できる楽しい時間だった。そして日本の家庭の雰囲気も味わうことができた。指導教官である沖先生の紹介がきっかけで交流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私の“第2の両親”。本当に親切にして頂いた。留学生にたくさんの思い出を作らせようと、わざわざ時間をとり、木曾路、諏訪湖、そば打ちを体験できる場所などに連れて行ってくださった。日本で行ったいくつかの旅行の半分ぐらいは、この小林さん一家と一緒に行ったものだろう。また、お正月にもご自宅に呼ばれて、日本のお正月の風習について知る機会を得た。私の人生で忘れることのできない大切な方であり、いつも感謝している。

最後にサークル活動だ。サークルを始めたもともとの理由は、友達を増やしたかったからである。サークル活動を通じて新しい友達ができ、たくさん話をするチャンスを得たのは言うまでもないが、そのうえ日本語に対する自信もついた。また、日本の友達を招待して韓国料理と日本料理を作って食べたり、飲み会などに参加して日本人大学生たちの文化も味わったりすることができた。サークルを通じて一石三鳥の効果を得ることができた。送別会の時にもらった手紙には、韓国語で「さよなら」ではなく「また、会いましょう」というメッセージがあった。これは忘れられない。

このような多くのことは、信州大学でなければできないことだったと思う。一年間の勉強や大切な人たちとの出会い、旅行を通じて経験した様々なことは他のことと変えられない大切な宝物だと思っている。いろいろな面で指導してくださった沖先生や日本語を指導してくださった佐藤先生、留学生活について細かい部分まで心配してくださった木暮先生をはじめ、留学生センターの先生方にもお世話になった。一年間大変だったことも、楽しかったこともあるが、楽しかったことの方が多かったと思う。笑顔で韓国に帰ることができる。指導してくださった

みなさまに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

짧은 일년간의 유학생생활에서 얻은 것

2005년4월부터2006년3월까지 신주대학교 교환유학생
한국 가톨릭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 전공 2학년 김영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일년간의 유학생생활. 일년간의 유학생생활은 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다. 일년 간의 유학생생활을 통해서 일본어 실력이 늘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더구나 언제나 함께했던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힘든 것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교환학생을 응모했고, 2004년 8월 운이 좋게 붙어 신주대학에서 2학년의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럼 이 지면을 빌려 감회 어린 1년간을 회상해 보려고 한다.

2005년4월1일 처음 경험할 일본에서의 유학생생활은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고 나고야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나고야 공항에서 마츠모토까지 총 6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다. 그 날을 회상하면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 뿐..... 마츠모토까지 가는 버스시간을 확실히 몰랐던 우리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십 번 이나 물어봐 가면서 전철을 타고 겨우겨우 마츠모토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유학은 힘들게 시작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지 문화면에서 너무나 비슷해 일본에 온 실감이 나지 않았다. 길을 걸을 때 히라가나, 카타가나로 써져 있는 간판을 보고서야 '아! 여기가 일본이구나'라고 생각했지 옆 동네로 이사온 것처럼 일본은 낯 설지 않은 땅이었다. 역시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사소통 이었다. '내가 말하는 일본어가 이해는 될까, 혹시나 내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등 한 학기 동안은 긴장 속에서 일본어를 구사해야만 했다.

전기에는 일본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유학생센터의 수업을 중심으로 들었다. 모든 일에는 노력이 없으면 성공 할 수 없는 것. 한자와 어휘가 부족했던 나는 일본어 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해 가면서 어휘능력을 늘리려는 노력과 도우미 아라이에미와 일주일에 1-2번씩

만나 발음연습을 하는걸 수다를 떨면서 일본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곤 했다. 후기에 들어서는 유학생센터의 수업과 인문학부의 수업, 1학년 공통과목 수업을 병행하면서 수업을 듣게 되었다. 「언어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수업과 청강생으로 담당교수 오키 선생님의 「일본어 교육개론」을 들었다. 수업의 내용은 전부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언어중심만이 아닌 일본어로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워서 인문학부의 수업인 수요일1교시와 금요일 2교시가 기다려지곤 했다. 특히 하나자키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유머를 섞어가면서 활기차게 수업하시는 모습은 정말로 멋있었다.

두 번째로 일본문화를 체험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학생센터의 수업중에 하나 인 전통문화수업은 일본문화를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도를 비롯해 기모노체험, 서예, 꽃꽂이, 가부키 등 많은 것을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였다. 그리고 일본가정의 모습도 맛 볼 수 있었다. 선생님의 소개로 처음 만난 고바야시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 '제2의 부모님'으로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다. 유학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일본의 명소 카미코지, 기소지, 수와코, 소바만드는 곳 등 을 데려가 주시곤 했다. 여행의 절반 정도는 고바야시 가족과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명절에도 불러주셔서 일본명절풍습과 음식들을 소개해주셨다.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클활동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번째로 서클을 시작 하게 된 이유는 많은 일본인 친구를 사귀려는 의도였다. 서클을 통하여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보다 자신있게 일본어를 말할 수 있게 된것이다. 또 일본대학생들과 집에서 한국음식과 일본음식을 만들어 먹고, 술자리 등 모임에 참가하면서 일본대학생들의 문화도 맛볼 수 있었다. 서클을 통해서 일석3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볼수 있다. 송별회를 할때 건네준 편지에는 한국어로 '안녕'이 아닌 '다시 만나자'라고 써 있는 문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것은 신주대학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일년간의 공부,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여행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해주신 오키 선생님, 일본어 지도해주신 사토 선생님, 유학생회에 대해서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신 코구레 선생님을 비롯해 유학생센터 선생님께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다. 일년간 힘든일도 있었고 즐거웠던 일도 있었지만 웃었던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웃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